

LUXURY

AUGUST 2021



모험과 탐험의 세계

PATTERN PLAY
SUMMER NIGHT RITUAL

Cartier

길고 지루한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여행업계는 이제 여행자들로 하여금 진짜 아드레날린을 분출하게 만들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평생 한 번 보거나 경험하기 힘든 극지방과 대자연의 생태를 탐험하는 ‘탐험 여행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럭셔리와 탐험’의 공존을 추구하는 극지 탐험 전문 여행사와 크루즈 선사들이 선보이는 5가지 여행 상품을 소개한다.

TAKE ME TO WONDERLAND



Emperors & South Pole by White Desert

화이트 데저트는 영국인 탐험가 패트릭 우드헤드가 설립한 남극 전문 여행사다. 그는 스키로 남극대륙의 4000km를 횡단하는 등 극지 탐험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탐험가로, 소수의 탐험가들에게만 허락되었던 남극의 숨겨진 절경을 일반인에게 소개하기 위해 ‘하얀 사막’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남극 전문 여행사를 열었다.

이들의 시그너처 여행 상품 ‘엠펙서스 & 사우스 폴’은 고객들을 배가 아닌 프라이빗 제트기로 남극에 실어 나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2인만 탑승 가능한 걸프 스트림 제트기로 비행을 시작해 남극 땅에 착륙한 다음, 황제펭귄 서식지와 남극점에 닿은 뒤 회항하는 8박의 코스다. 1인당 약 1억 원에 달하는 이 럭셔리한 여행 상품의 하이

라이트가 바로 ‘늑대 송곳니 활주로Wolf's Fang Runway’라고 불리는 얼음 활주로다. 이는 화이트 데저트사가 고객들을 남극 탐험의 베이스캠프로 이동시키기 위해 만든 개인 활주로로, 만년설에서 수직으로 1000m나 솟아 있는 바위 기둥 사이에서 랜딩하는 비현실적인 경험이 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바젤러 BT-67’이라 불리는 소형 제트기를 타고 남극대륙의 동부의 시르마허 오아시스로 이동하면, 이 여행의 기지가 되는 돔형태의 개인 베이스캠프 ‘휘치웨이 오아시스 Whichway Oasis’에서 여정을 풀 수 있다. 사우나와 마사지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여행 가이드와 요리사로 구성된 팀이 남극 탐험 전과 후의 편안한 휴식을 돕는다. 이들이 자신들의 여행을 “극지 탐험



이 아니라 ‘고급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깝다’고 설명하는 이유다. 프라이빗 제트기에서 남극대륙의 험준한 얼음 산맥을 내려다보는 2시간 반의 여정을 끝내면 비로소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의 유명 다큐멘터리 <Seven Worlds, One Planet>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한 황제펭귄 서식지에 닿는다. 이곳에서는 국제남극관광협회(AAT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25m의 거리를 유지하며 황제펭귄들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후에는 초기 남극 탐험 대원들의 정복 대상이었던 ‘남극점’에 도달하는 코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근처에 마련된 캠프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노련한 탐험 대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액티비티 역시 특권이다. 험준한 설산과 얼음 물결 사이를 지나는 트레킹을 비롯해, 빙벽 등반, 얼음 사막 사파리, 얼음 터널 탐험 등 탐험가의 DNA가 새겨진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white-desert.com



Galapagos-Silver Origin by Silversea Cruises

일시적으로 섬을 폐쇄했던 에콰도르 정부가 갈라파고스제도를 다시 개방함과 동시에 세계적 럭셔리 선박 회사 실버시 크루즈는 이 지역 여행에 특화된 상품을 내놓았다. 오로지 갈라파고스 크루즈만을 위해 설계한 배 '실버 오리진호'를 타고 7일간 갈라파고스제도 곳곳을 살살이 둘러볼 수 있는 상품이다.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세계 휴양지>를 쓴 헬렌 아놀드가 말했듯 이 섬들을 둘러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크루즈를 타고 다윈의 진화설에 영감을 준 동물들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것이다. 실버시는 19개의 섬으로 이뤄진 갈라파고스제도를 투어하는 2가지의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로는 공항이 있는 산크리스토팔섬에서 산크리스토포나(하일랜드), 키커 록, 이슬라 바르톨로메, 버커니어 코브(산티아고) 등을 둘러보는 서부 투어 코스다. 조디악 크루즈에 승선해 여러 섬의 생태계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으며, 갈라파고스의 풍부한 야생 생물과 화산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과거 이곳에서 행해졌던 고래잡이와 해적들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다른 코스는 제노베사섬, 산티아고섬,



페르난디나 섬, 이사벨라섬 남부, 산타크루즈섬의 파우스트 요레나 사육센터 Fausto Llerena Breeding Center를 거치는 북중부 투어다. 제노바섬에서는 오직 이곳에서 서식하는 바다 이구아나, 페르난디나섬에서는 바다거북과 날지 않는 가마우지, 이사벨라섬에서는 갈라파고스 펭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자연과 조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욱 추천할 만한 코스다. 이 투어에 이용되는 실버 오리진호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대형 창을 통해 외부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게스트당 가이드 수를 8대 1로 유지해 밀착된 서비스를 펼친다. 호텔 이상의 인테리어로 꾸민 스위트룸, 에콰도르에서 영감을 얻은 요리 등 호화로운 크루즈의 면모 역시 놓치지 않았다. 가격은 1인 기준 약 1300만 원선. www.silversea.com





Between the Poles - Our Epic Global Expedition Cruise by Hurtigruten

‘생애 단 한 번’, ‘버킷 리스트’ 같은 수식어는 바로 이런 여행에 어울리는 말일 테다. ‘Between the Poles’라는 패키지의 이름처럼, 이 크루즈는 북극 연안을 항해하고 남극까지 닿는 66일간의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의 위도를 찬찬히 훑어 내려오는 여행인 만큼, 지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날씨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2022년 9월 출발하는 이 여행은 캐나다의 북극 바닷길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를 지나 그린란드로 이동한 다음 카리브해와 파나마 운하를 통해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고, 남극에 도착하기 이전에 남아메리카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주요 도시와 유적지에 정박하는 코스로 이뤄져

있다. 아문센이 생존의 기술을 배웠던 북서항로의 역사적 장소에 착륙하며, 북극곰·고래·물개 같은 북극의 야생동물을 만나는 것은 물론, 운이 좋다면 얼음 사이를 항해하는 카약을 탈 수도 있다. 이후 파나마해를 지나 태평양에 접어든 후에는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의 해안 공동체와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파타고니아를 지나 사우스 셰틀랜드 군도와 남극반도 주변에서 지내며, 작은 탐험선을 통해 남극의 빙산과 빙하 사이를 항해하는 환상적인 경험으로 여정이 마무리된다. 극지 탐험에 최적화된 배 ‘MS 프레임’을 이용하며, 가격은 1인당 약 6000만 원. www.hurtigruten.com





The Weddell Sea & Larsen Ice Shelf - with National Geographic by Ponant

억겁의 세월을 지난 빙산의 웅장한 운곽, 빙하와 절벽이 해협의 검푸른 바닷물에 투영되는 모습, 빙판 위를 구르는 게잡이 바다표범, 범고래의 유유했던 헤엄, 아델리펭귄의 종종걸음... 프랑스의 해양 여행사 포낭이 선보이는 이 여행 상품은 '남극 여행의 정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남극 풍경을 낱알이 볼 수 있는 코스로 짜여 있다. 탐사선은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출발해 악명 높은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고, 세계 각국이 파견한 남극 과학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는 남셰틀랜드, 북남극반도를 거쳐 웨들해로 진입한다. 웨들해는 그린피스를 비롯해 전 세계의 자연보호 기구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기

지와도 같은 곳. 여정의 하이라이트는 웨들해 북서쪽의 거대한 라르센 빙봉의 곁으로 다가가는 일이다. 2017년 'A68a' 빙산이 떨어져 나와 지구온난화 이슈를 촉발했던 바로 그 거대한 빙봉의 운곽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상품은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협업으로 기획되어 운이 좋다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가 및 탐험가들과 함께 승선하는 특별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가격은 1인당 약 1900만 원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하이브리드 전기선이자 쇄빙 탐사선인 '르 코망다 샤르코호'를 이용하게 된다. www.ponant.com





Greenland by Yacht by Cookson Adventure

“모두가 여행을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어떻게 탐험할 수 있는지 아는 건 아니다.” 영국의 탐험 전문 여행사 쿡슨 어드벤처의 설립자 헨리 쿡슨은 탐험가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지구상에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수많은 여행 상품을 큐레이팅하고 있는 인물이다. 극지 탐험 전문가, 잠수정 조종사, 다큐멘터리 제작자들로 구성된 쿡슨 어드벤처는 프라이빗 잠수정을 이용한 남극 탐험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수중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를 찾아가거나 태평양 바다에서 과학자들과 함께 상어의 생태를 조사하는 등 상상을 뛰어넘는 여러 상품을 선보여왔다. 이들이 선보이는 ‘그린란드 바이 요트’ 상품은 3인승 U-보트

웍스U-Boat Worx 잠수정, 카약, 헬리콥터 패드 등을 포함한 세빙 요트 ‘레전드호’를 타고 그린란드의 내륙과 해안을 탐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탐험 전문 여행사인 만큼 그 접근법 역시 남다르다. 헬리콥터를 타고 상공에서 빙산 곁으로 접근하거나 카약을 타고 피오르 안으로 들어가 항해할 수도 있고, 난파선과 바다 생태를 볼 수 있는 얼음 다이빙이나 카이트 스키 등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물론 북극광과 신기루, 오로라, 이누아트 문화 체험, 야외 캠핑, 스키나 개 썰매, 온천 등 북극 지역에서만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가격은 1인당 약 1150만 원부터. cooksonadventures.com 글 박지혜(게스트 에디터)

